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도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참여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B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부활절 제7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주의 전에 나올 때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44. 찬송하는 소리 있어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생명은 사랑 가운데 태어나고 사랑 가운데 자라는 것임을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생명들은 모두 사랑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사랑의 욕구로 인해 우리 영혼은 파괴해졌습니다. 거칠기 이를 데 없는 폭력의 냉혹함이 부드러움과 따뜻함을 갈구하는 우리의 영혼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돌이켜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거칠고 야비하고 이기적인 생각의 뿌리를 뽑아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향해 '예'라 말하고, 거짓과 폭력을 향해 '아니'라 말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주십시오. 지극한 사랑으로 증오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고전6:19-20 인도자

♠ 교 독 문 10. 시편27편 다함께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다함께

대표기도 I. 전나라 선생 II. 한완식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송 323. 주께로 한 걸음씩 다함께

성경봉독 I. 눅24:44-53 인도자

II. 시120:1-7 박규석 집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I. 부탁해 김재흥 목사

II. 평화의 집에 머물라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함께

헌신의 찬송 523. 나 형제를 늘 위해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71. 내게 있는 모든 것을(1)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치스코)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도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참 자유인답게 살아가십시오. 홀로 잘 살기보다는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땀흘리십시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이들과 깊이 사귀며 평화의 일꾼이 되십시오.

다함께 : 아멘. 우리는 사랑의 빛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사랑의 빛을 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힘을 다하여 이웃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이 존중되는 평화의 새 세상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를 이끌어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레위기 강해(11)/김재흥 목사	에베소서 강해(38)/김기석 목사
기도 : 김근종 권사	기도 : 최숙화 권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최인환 전도사 김기석 목사	김지은 선생 구성실 장로	인도자 박혜경 권사

5월	영접위원	방문성	김정길	오진훈	최숙화	박효선	문인옥
	헌금위원	윤석철	이호원	김훈동	구명자	이순정	강순배

상충하는 가치들 속에서

나는 전쟁에 대한 이 이상한 열정으로부터 사람들이 그 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한 가지 요소를 볼 수 있다. 삶을 단순한 말로 요약해버리는 것이 그것이다. 현대인들은 아주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기에 어떻게 해야 제 정신을 올곧게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 묻지 않을 수 없다. 모든 도덕적 모험, 모든 사회적 상황 그리고 모든 실제적인 문제는 충성을 요구하는 일련의 상충하는 전체를 내포하고 있다. 다른 것이 아닌 어느 하나에 자신을 바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옳은 것을 택하기 위해 사랑을 희생할 것인가?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 박탈당한 자들과 사귀는 일에 대한 감각을 앗아갈 수도 있는 사회적 특권들을 손에 넣을 것인가? 자기 가족을 돌보기 위해 국가를 소홀히 할 것인가? 위대한 인류 가족에 손상을 입히면서까지 애국적일 것인가? 자기 건강을 잃을 정도로 부지런할 것인가? 아니면 관심을 갖고 있는 위대한 대의를 희생시키면서 건강을 지킬 것인가? 신실하게 됴으로써 결과적으로 잔인하게 될 것인가? 혹은 친절함으로써 조금 덜 부드럽게 될 것인가? 삶의 편의를 구하면서 삶의 과정을 다소 단조롭게 할 것인가? 용기를 궁극적인 미덕으로 삼음으로써 안정된 연성의 사회가 촉진해온 미덕들을 무시할 것인가?

이 상충하는 여러 주장, 관심, 충성, 이상, 가치와 공동체들의 그물망으로부터 그를 구해주는 것은 다른 모든 공동체들을 넘어 국가에게 잠정적인 우선권을 부여하고, 용기를 최고의 미덕으로 만드는 전쟁 심리학이다. 나는 지난주에 훈련소에서 짧은 장교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군복무를 통해 “자기를 찾았기 때문에” 군대에 속해 있다는 것이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좀더 대화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그를 기쁘게 한 것은 어쩌면 삶에 대한 이 같은 단순화—권위에 대한 사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불행히도 삶의 복잡성에 대한 이런 잠정적인 단순화는 그리 만족스러울 수 없게 마련이다. 그것은 결국 삶에 폭력적이기 때문이다. 위기에 처한 공동체는 잠시 동안 무제약적인 충성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공동체나 대의라도 평시에는 그런 특권이나 수단을 확보할 수 없다. 그러나 사건들이 더 이상 뒤죽박죽으로 전개되지 않을 때, 선악이 착종되어 있는 혼란 속에서도 세상이 이전보다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날 때 판단은 냉정을 되찾게 된다. 위기에 처한 공동체는 그 미덕이 그런 것만큼이나

약덕 때문에도 위협을 받는다. 그리고 악마적인 적은 평균적인 인간의 모습을 되찾게 된다. 육체적 용기는 다른 미덕들의 도움이 없다면 사람을 품위 있게 하는 데 그다지 적절하지 못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전쟁의 자기 망각성에 의해 높이 올려졌던 바로 그 사람들이 새로운 증오의 심연으로 가라앉아 버렸다. 모든 것을 불사르는 열정 안에는 오직 잠정적인 평화가 있을 뿐이다. 의심할 나위 없이 최고의 가치를 향한 열정인 경우를 제외하고 말이다. 그런데 그 최고는 뭘까?(1918)

참 교인

오늘은 멋진 부활절 예배를 드렸다. 어머니는 젊은 여신도회 회원들과 함께 작은 예배당을 아름답게 꾸미셨다. 이렇게 작은 공간을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끌 만큼 장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21명이나 되는 새로운 교우들을 맞아들였다. 그들 대부분은 다른 교회에 교적이 없었지만 이런저런 교회 안에서 성장해온 이들이었다. 우리는 그들의 신앙을 재확인하였다.

교인 수를 늘리는 일은 정말 심각한 문제이다. 한때는 분명한 개종을 교회의 친교 속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믿었던 교회들조차,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오직 위기 경험을 통해서 뿐이라는 전통적 가설에 대한 신뢰를 잃은 채 “결단의 날”을 마련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종류의 경험을 여전히 역설하지 않는다면 교인에 대해 검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대체로 “개인적인 복음주의” 캠페인은 기독교적인 삶을 그 진정한 목적으로 삼기보다는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한 일상적 모집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이런저런 동호회가 회원들을 확보하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과 별반 다를 바 없다.

물론 우리는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교회의 친교 가운데 들어오는 참된 문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전부 아니면 전무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나는 기독교적 친교를 독특하게 하기 위해 입교에 앞서 시행할 수 있는 검증절차를 알지 못한다. 유일한 가능성이 있다면 교회의 선포와 가르침이라는 방편을 통해 옥석 가리기를 하는 것이다. 큰 어려움 없이도 교회에 입회하게 하되, 교회에 머무는 것은 어렵게 하자. 이런 계획의 난점은 교회가 성숙하지 못한 기독교인들로 채워지기 쉽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들이 기준이 되어 복음의 알짬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1919)

|| (라인홀드 니버)

산 아래

어느 집 굴뚝이 풀어놓았을까
소매 놓친 연기 산등성이 감고 땀돌지만
살얼음이 잠근 무논 속의 마을
건널 수 없어
이쯤에서 스치며 지나가는데

아궁이 앞에는 누가 앉았나
저녁도 이슬해져야 한 시루
어둠을 익혀내는지
흰머리구름 층층엔 온통 팔빛 노을

하루 종일 밖에서 노르나 끼니때조차 까먹은
배고픈 아이들 대문 안으로 거뒀들이시는
큰 엄마 거기 계시는가
철새들까지
줄지어 그쪽 숲으로 날아가고 있다
(김명인)

◇ **주님의 교회**를 설기는 이들 ◇

원로목사 : 박정오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최인환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찬양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윤정덕 구성실 한완식 임정자 강인식 김정숙 이선림 박규석 박경선
 임승동 백혜숙 임 영 정경례 박경원 김혜권 안정숙 박영숙 김시영
 임보람 김용원 백혜성 오자영 이용희

월정헌금:

김현영 정원석 안길상 이형숙 박병구 이재구 황선희 김종문 지명주
 김성자 이정은 박순성 백숙현 김수진 김승현

감사헌금:

김기석 김희우 김성한 조영순 문금석 강인식 김정숙 윤석철 장혜숙
 최희영 방문성 박준희 이기분 김순복 정완수 김재광 임 영 정경례
 이봉배 김정길 최숙화 백묘현 박병구 오현정 조항범 김 극 허재영
 나오미선교회 시므온선교회 무명3

생일감사헌금: 정복순 윤미경 허다영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유 영 남	연 합 속 회
베들레헬	노 순 옥	정 경 례	김 윤 수	
안 디 옥	임 정 자	이 춘 희	이 재 문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이 봉 배	
갈 린 리	조 병 주	박 애 순	박 옥 순	
베 다 니	박 흥 재	곽 권 희	박 흥 재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허 정 윤	
엠 마 오	최 숙 화	권 미 정	이 감 재	
에 베 소	이 순 정	장 혜 숙	오 봉 옥	
빌 립 보	구 성 실	박 현 우	권 명 자	
가 버 나 움	구 명 자	안 흥 숙	구 명 자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김 시 영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박 혜 경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윤 정 화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박 혜 경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임원회** : 예배 후 5월 정기 임원회가 열립니다.
2. **연합속회** : 6월 2일(금) 오전11시 교회에서 모입니다.
예배 인도 - 에베소속 식사준비 - 시온속
3. **봉사** : 애니아의 집 목욕 봉사(6월 2일 오후 12시 30분)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4. **심방** : 가정별 심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성스런 마음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화(30) - 에베소 속 가정
5. **친교 모임** : 4남녀 선교회의 친교 모임이 31일 양평에서 열립니다.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아침 9시 30분에 출발합니다.
6. **녹색살림야학** : 배움의 꿈을 이뤄줄 녹색살림야학 개교식이 6월 1일(목) 저녁 7시에 감리교신학대학에서 열립니다.
7. **지방 선거** : 지방 자치단체장과 시·구의원을 뽑는 선거(5.31)에 꼭 참석하십시오. 최선이 없으면 차선이라도 택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투표소로 사용됩니다.
8. **신앙실천** : 신앙생활은 고백을 생활화할 때 비로소 활기를 얻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 보십시오.

* 식당 봉사 : 가버나움 속

* 헌화 : 이영란 집사 (결혼 기념일)

<새교우 소개>

2618 이종현 소속: 3남선교회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4: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